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유태정¹ · 김석선²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 서울여자간호대학교¹,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²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Yoo, Tae Jung¹ · Kim, Suk-Sun²

¹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²Division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and determine whether the perceptions of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378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ded to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 **Results:** Level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optimal parenting, 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and neglectful parenting). Score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the group with perceived 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other groups. In a regression model, maternal care and paternal overprotec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lso, maternal overprotection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who perceive that both fathers and mothers are low in care, warmth, and support; but high in overprotection, control and intrusiveness are vulnerable to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Targeted interventions to change and reframe students' perception of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in a positive way may reduce their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Key Words: Parenting, Depression, Cell phones, Behavior addictive, Young adul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으로,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1].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나타내는 태도 혹은 행동을 의미하며, 문화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의 형태, 우울,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Kim, Suk-Sun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85, Fax: +82-2-3277-2850, E-mail: suksunkim@ewha.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유태정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from Ewha Womans University.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t is supported by the Hanmaeum Scholarship from the Seoul Nurses Association.

Received: Apr 15, 2015 | Revised: Jun 23, 2015 | Accepted: Jun 24,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진다[1, 2]. 서양 문화는 개별화, 자율성, 독립성 등을 중요시하고, 부모관계보다 부부관계가 강조되어 부모의 통제가 개인의 발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이라고 여겨왔다[2]. 이와 반대로, 한국 문화는 유교를 전통 사상으로 양육에 있어 부자유친(父子有親)의 가치관 아래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하는 효(孝)와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慈)를 중요시하여, 서양보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2]. 이러한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통제 수준이 높은 양육 방식을 보일 때[2] 자녀는 이를 부모의 관심으로 받아들여거나[3], 아니면 이를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4].

서양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나고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는[1]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의 양육책임이 자녀의 대학 졸업 혹은 결혼까지로 인식되기 때문에[5], 청소년후기까지도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6]. 여기서 청소년 후기는 만 18세에서 24세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를 말한다[7]. 특히, 최근 연구자들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를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하고 청소년기의 의존성을 벗어나서 성인으로서의 출발점을 통과하였지만 아직 성인기의 사회적·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기라고 개념화 하였다[7].

특히 대학생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과업 달성을 준비하는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성인 진입기에 속한다[7]. 국내 대학 진학율은 66.0%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지만[8], 대학생 취업률은 2005년 74.1%에 비해 2014년 58.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9]. 대학교육의 학비 부담 증가와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은 대학생 자녀의 경제적·심리적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10]. 이와 함께 최근 헬리콥터 양육이라는 새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주위를 맴돌면서, 자녀의 모든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하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결정하여 자녀의 독립성을 방해하는 과보호적 양육방식을 의미한다[6].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성공을 위해 물질적·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자녀 삶의 결정권까지 갖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10], 자녀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의 적응, 취업준비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선택·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주어진 역할에 대해 혼란과 불안감으로 자존감 저하, 우울 등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11].

국내 대학생의 두명 가운데 한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12],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률이 18.1%로 40대, 50대 중독률 5.0%보다 3배 높아[13] 국내 대학생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15].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도를 따뜻함, 수용,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는 ‘돌봄’과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 유발 등 통제 행동을 의미하는 ‘과보호’의 두 가지 차원만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 제한점이 있다[16]. 부모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유교 문화 속에서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 양육태도는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으로 단순화 시켜서 이해되기보다는 다양한 부모 양육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차원의 형태로 연구되어 질 필요가 있다.

Parker[17]에 의하면 부모 양육태도의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은 4가지 부모양육태도의 형태로 구분된다(Figure 1): 애정이 있고 과보호가 낮은 최적군(optimal parenting), 애정과 과보호가 높은 애정어린 통제군(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애정이 없고 과보호가 높은 애정 없는 통제군(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부모의 애정과 과보호가 부족한 방치군(neglectful parenting). 일본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형태가 애정 없는 통제군일 때 다른 양육태도의 형태에 비해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8, 19]. 그러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는 부모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나누어 측정하기보다 하나의 부모양육태도로 묶어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가 다른 한국문화에서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데 다양한 전략 수립과 중재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울시 소재 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남녀 공학 2곳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모두 계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계획은 E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No. 81-14)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등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구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의 총 소요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2곳 대학교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각 1개 대학교에서 15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여 총 391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20]. 그러나,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로 378

명(96.7%)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연구도구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A Parent Bonding Instrument, PBI)[17]를 한글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21]. 총 25문항(돌봄 문항 12개, 과보호 문항 13개)으로 연구대상자가 만 16세까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적으로 자가보고하는 형식이다. 4점 Likert로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과 과보호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양육태도는 4가지 형태로 첫째,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 점수는 최적군(optimal parenting), 둘째, 높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 점수는 애정어린 통제군(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셋째, 낮은 돌봄 점수와 높은 과보호 점수는 애정 없는 통제군(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넷째, 돌봄과 과보호 점수가 모두 낮으면 방치군(neglectful parenting)으로 나뉜다[17].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고[21],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과보호, 어머니의 돌봄, 어머니의 과보호 순으로 Cronbach's $\alpha = .86, .85, .85, .86$ 이었다.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1971년 미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개발한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한글로 번역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2]. 연구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지난 한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을 0점부터 3점으로 표시하고, 총 점수 범위는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이 16~24점이면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 25점 이상이면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definite depressive symptom)으로 선별한다.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22],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23]. 연구도구는 총 15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 결과

총점 44점 이상인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40점 이상 43점 이하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39점 이하인 경우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개발 당시 스마트폰 중독의 신뢰도 값은 전체 Cronbach's α 는 .81로 확인되었다[2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4가지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으며, 모두 등분산이 가정되어 Tukey 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48명(39.2%), '여성' 230명(60.8%)이었으며, 평균 21.9±2.81세였다. 종교는 '종교 없음'이 217명(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순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관계는 '친밀하다'가 173명(45.7%)으로 제일 많았으며, '매우 친밀하다', '보통', '친밀하지 않다', '매우 친밀하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우울의 평균은 16.2±10.92점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33.2±7.40점이며, 일반 사용자군 273명(72.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78명(20.6%), 고위험 사용자군 27명(7.2%)이었다.

2. 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1)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F=12.71, $p<.001$)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F=14.57, $p=.001$)에 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37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148 (39.2)
	Female	230 (60.8)
Age (year)		21.9±2.81
Religion	Protestant	90 (23.8)
	Catholic	38 (10.0)
	Buddhist	32 (8.5)
	None	217 (57.4)
	Other	1 (0.3)
Family relationship	Not very familiar	8 (2.1)
	Not nearly familiar	18 (4.8)
	Neither	57 (15.1)
	Generally familiar	173 (45.7)
	Very familiar	119 (31.5)
	Missing	3 (0.8)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23.5±5.65
	Maternal care*	26.0±5.14
	Paternal overprotection [†]	12.2±6.11
	Maternal overprotection [†]	13.1±6.57
	Depression	16.2±10.92
	Smartphone addiction [‡]	33.2±7.40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Care range=0 to 36;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C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Overprotection range=0 to 39;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Overprotection); [‡]Measured according to the S-Scale (range=15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Smartphone Addiction).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애정 없는 통제군이 애정어린 통제군($p=.04$), 최적군($p<.001$)보다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의 차이

부모 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중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F=5.59, $p<.001$)와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F=3.35, $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아버지의 애정 없는 통제군이 최적군($p=.004$)과 방치군($p=.003$)보다 스마트폰중독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 형태의 사후 검정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3. 부모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양육태도, 우울,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by Four Styles of Perceived Parenting (N=378)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		
		M±SD	F (p)	Tukey HSD	M±SD	F (p)	Tukey HSD
Four styles of perceived paternal parenting [‡]	OP ^d (n=130)	12.7±9.99	12.71	a, b, d < c	32.1±7.65	5.59	a, d < c
	ACP ^b (n=56)	16.3±11.94	(< .001)		33.5±7.29	(.001)	
	ALCP ^c (n=119)	20.7±10.58			35.3±6.45		
	NP ^d (n=73)	15.0±9.75			31.5±7.81		
Four styles of perceived maternal parenting [‡]	OP ^d (n=130)	12.6±9.44	14.57	a, b, d < c	32.2±8.06	3.35	
	ACP ^b (n=56)	15.4±10.43	(< .001)		34.9±7.60	(.019)	
	ALCP ^c (n=119)	21.1±11.41			34.2±6.49		
	NP ^d (n=73)	14.7±10.01			31.9±7.17		

OP=Optimal parenting; ACP=Affectionate constraint parenting; ALCP=Affectionless control parenting; NP=Neglectful parenting; *Measured according to the CES-D (range=0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higher depression); [†] Measured according to the S-Scale (range=15 to 60; higher scores indicate smartphone addiction); [‡] Measured according to the PBI.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ption of Parenting,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378)

Variables	Perception of parenting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1	2	3	4		
	r (p)	r (p)	r (p)	r (p)		
Perception of parenting						
1. Paternal care	1.00					
2. Maternal care	.52 (< .001)	1.00				
3. Paternal overprotection	-.39 (< .001)	-.37 (< .001)	1.00			
4. Maternal overprotection	-.33 (< .001)	-.48 (< .001)	.69 (< .001)	1.00		
Depression	-.25 (< .001)	-.34 (< .001)	.39 (< .001)	.37 (< .001)	1.00	
Smartphone addiction	-.09 (.093)	-.06 (.223)	.21 (< .001)	.22 (< .001)	.27 (< .001)	1.00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아버지의 과보호(r=.39, p<.001), 어머니의 과보호(r=.37, p<.001), 스마트폰 중독(r=.27,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아버지의 돌봄(r=-.25, p<.001), 어머니의 돌봄(r=-.34,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아버지의 과보호(r=.21, p<.001), 어머니의 과보호(r=.22,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버지의 돌봄, 어머니의 돌봄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4. 부모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하부요인(돌봄과 과보호)이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

정값은 1.81 (우울), 1.98 (스마트폰 중독)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46에서 0.6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1.48~2.18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 분석결과 우울에 대한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분포 P-P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우울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5%였다. 어머니의 돌봄(β=-.19, p<.01), 아버지의 과보호(β=.24, p<.001)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돌봄과 어머니의 과보호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모양육태도가 어떤 영향을 주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Perception of Parenting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N=378)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p
Depression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0.05	.11	-.03	-0.47	.640
	Maternal care	-0.41	.13	-.19	-3.25	< .001
	Paternal overprotection	0.43	.12	.24	3.67	< .001
	Maternal overprotection	0.16	.11	.10	1.45	.149
F=23.86, p<.001, R ² =.20, Adj. R ² =.195						
Smartphone addiction	Perception of Parenting					
	Paternal care	-0.04	.08	-.03	-0.43	.665
	Maternal care	0.11	.09	.08	1.17	.244
	Paternal overprotection	0.13	.09	.11	1.53	.128
	Maternal overprotection	0.19	.08	.17	2.33	.021
F=5.84, p<.001, R ² =.06, Adj. R ² =.049						

는지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4.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보호($\beta=.17, p<.05$)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4가지 형태에 따른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비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된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우울은 평균 16.2±10.92점으로, 이는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probable depressive symptom)에 속한다[22].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 척도(CES-D)의 1~15점은 ‘정상군’, 16~24점은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 25~60점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으로 나눌 수 있다[22]. 이와 같은 절단점(cutoff point)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를 나눌 때, ‘정상군’ 205명(54.2%), ‘가능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군’ 83명(22.0%), ‘명확한 우울증 증상을 가진 군’ 90명(23.8%)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명 중에 1명은 가능한 우울증상을 가진 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평균은 2012년 국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우울 평균 18.4±9.40점보다 낮은 점수이지만[24], 2013년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과 우울, 삶의 의미를 연구한 기존연구의 우울 평균 13.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25].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나타난 스마트폰 중독 평균은 33.2±7.40점으로, 일반 사용자군 273명(72.2%),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78명(20.6%), 고위험군 사용자군 27명(7.2%)

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4명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잠재적 위험군 및 고위험군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미래창조과학부[13]에서는 대학생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2.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1%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을 18.1%, 대학생 5명중에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 우울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과보호라고 인지한 대학생일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돌봄이라고 인지한 대학생일수록 우울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돌봄은 우울을 낮추고 아버지의 과보호는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의 대학생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우울감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26]. 특히, 미국 대학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높은 과보호와 낮은 돌봄을 보일수록 불안과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별화, 자율성, 독립성 등에 가치를 두는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부모의 관심보다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어 갈등을 경험하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28].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부모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측정하여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는데 높은 어머니의 돌봄과 낮은 아버지의 과보호가 영향 요인임을 발견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가족 구조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따뜻하고 수용적이며 애정어리다고 지각하는 대학생은 우울이 낮아지고, 반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과잉통제와 관섭으로 지각되면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라고 인지한 대학생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국내의 대학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이고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하는 대학생 일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4]. 본 연구의 상관관계와 회귀모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모 양육태도 중 어머니의 과잉통제와 간섭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4.9%로 작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arker[17]는 Bowlby의 애착이론[29]에 기반하여 양육태도를 2가지 통제와 돌봄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축으로 돌봄과 과보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4가지 부모양육태도 형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돌봄과 과보호 두 차원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서 애정 없는 통제군 일 때 애정어린 통제군, 방치군, 최적군보다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낮고 과보호가 높은 애정 없는 통제로 지각하는 대학생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고, 역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다고 지각하는 최적군의 대학생들은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의대생과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와 우울을 연구한 결과 돌봄이 낮고 과보호가 높은 애정 없는 통제군에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18]. Parker[17]의 이론에 의하면 부모-자녀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자녀들은 부모 양육태도 형태를 따뜻한 돌봄이 많고, 과보호가 낮은 최적군으로 지각하며, 반대로 부모-자녀의 애착이 불안정할 때 애정어린 통제군, 애정 없는 통제군, 방치군으로 지각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자녀의 애착이 불안정한 자녀들은 부모양육태도를 보살핌과 사랑은 부족하고 간섭과 통제가 과하다고 지각하기 쉬우며, 이는 우울의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형태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형태가 애정 없는 통제군 일 때 최적군과 방치군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 양육태도의 형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는 애정 없는 통제군일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돌봄과 과보호가 높은 애정어린 통제군에서 모바일폰 중독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9]고 본 연구결과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다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별하여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어린 통제군, 애정 없는 통제군, 방치군, 최적군 4가지 형태에 따라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 및 중독 등 정신건강에 취약한 대학생은 부모 양육태도를 통제와 과보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 보살핌, 돌봄을 낮게 지각하고 간섭과 통제인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애정없는 통제군에서 우울과 스마트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외에도 알코올 및 도박중독, 불안, 자살 등 다른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명 중에 1명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생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단계적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대학생이 부모의 사랑, 보살핌, 돌봄을 낮게 지각하고 간섭과 통제인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 경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Bigner J, Gerhaedt C.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inth ed. NEW JERSEY: Pearson; 2012. 40 p.
2. Choi SJ. Psychology of Korean. Seoul: Hakjisa; 2011. 333 p.
3. Chung JN, Choi KS. Parental control and Korean family. *Family and Culture*. 2008;20(4):183-203.
4. Yoo IY. Parenting stress of adolescent children. *Korean Parent-Child Health J*. 2005;8(1):17-22.
5. Kim SG.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65:5-18.
6. Lee YW, Kim JJ, Yim SY, Chae MO, Lee HR, Oh J.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helicopter parenting. *Child Health Nurs Res*. 2014;20(4):237-46. <http://dx.doi.org/10.4094/chnr.2014.20.4.237>
7. Arnett JJ.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http://dx.doi.org/10.1093/acprof:oso/9780199929382.001.0001>
8.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Country Notes (Korea)* [Internet]. 2014 [cited 2015.03.14.]. Available from: <http://www.oecd.org/general/searchresults/?q=Education%20At%20a%20Glance%20Korea&cx=012432601748511391518:xeadub0b0a&cof=FORID:11&ie=UTF-8>
9. Statistics Korea. *Higher education graduates employment rate* [Internet]. 2014 [cited 2015.03.14.].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dx_cd=1551
10. Kim EJ. Emerging adulthood as the new developmental stage: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in Korea. *Discourse* 201. 2014;17(3):83-129. <http://dx.doi.org/10.17789/discou.2014.17.3.004>
11. Schwartz SJ, Hardy SA, Zamboanga BL, Meca A, Waterman AS, Picariello S, et al. Identity in young adulthood: links with mental health and risky behavior. *J Appl Dev Psychol*. 2015; 36:39-52. <http://dx.doi.org/10.1016/j.appdev.2014.10.001>
12. Song JY, Paik JW, Kim JW. Development of a model for the detection and management of depression in young adult. *Seoul National Hospital Natl Cent Ment Health Res and Educ*. 2008. 141 p.
13.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3 Prevalence of Internet Addiction [Internet]. 2014. [cited 2015.03.18.]. Available from: <http://Korea.go.kr/govTask/govTaskDetailView.do?seq=830&govCode=1710000>
14. Kim BN, Choi HL.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on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 Sci Res*. 2013;29(1):1-25.
15. Kim BN, Ko EJ, Choi HL.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3):67-98.
16. Jung ES, Lee JY.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ocial support and hardiness on subjective happiness. *Korea Contents Soc*. 2013;13(9):204-15.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204>
17. Parker G. Parental 'affection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delineated. *Arch Gen Psychiatry*. 1983;40(9):956-60. <http://dx.doi.org/10.1001/archpsyc.1983.01790080038005>
18. Otani K, Suzuki A, Matsumoto Y, Sadahiro R, Enokido M. Affectionless control by the same-sex parents increases dysfunctional attitudes about achievement. *Compr Psychiatry*. 2014;55(6):1411-4. <http://dx.doi.org/10.1016/j.comppsy.2014.04.003>
19. Toda M, Ezoe S, Nishi A, Mukai T, Goto M, Morimoto K. Mobile phone dependence of female students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 Identity*. 2008;36(6):765-70. <http://dx.doi.org/10.2224/sbp.2008.36.6.765>
20. Kim NS, Lee KE. Effects of self-control and life stres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 Soc Health Inform Stat*. 2012;37(2):72-83.
21. Song JY.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evaluation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iatry Investig*. 1992;31(5):979-92.
22. Cho MJ, Kim KH.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Psychiatry Investig*. 1993;32(3):381-99.
23. Kim ST.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Galam Publishing. 2011:38-65.
24. Lee SH, Kim SJ.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2;26(3):453-64.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453>
25. Schnetzer LW, Schulenberg SE, Buchanan EM. Differential associations among alcohol use, depression and perceived life meaning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 Subst Use*. 2013;18(4):311-9. <http://dx.doi.org/10.3109/14659891.2012.661026>
26. Williams CL, Harfmann EJ, Ingram RE, Hagan KE, Kramer NM. Specificity of parental bonding and rumination in depressive

- and anxious emotional distress. *Pers Individ Dif*. 2015;79: 157-61. <http://dx.doi.org/10.1016/j.paid.2015.01.055>
27. Grant KA, Bautovich A, McMahon C, Reilly N, Leader L, Austin MP. Parental care and control during childhood: associations with maternal perinatal mood disturbance and parenting stress. *Arch Womens Ment Health*, 2012;15(4):297-305. <http://dx.doi.org/10.1007/s00737-012-0292-0>
28. Lee SH. A review o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s of self-determination. *Asian J Educ*. 2009;10(1):1-32. <http://dx.doi.org/10.15753/aje.2009.10.1.001>
29. Bowlby J.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 J Psychiatry*. 1988;145(1):1-10. <http://dx.doi.org/10.1176/ajp.145.1.1>